

# K-방산 도약 “첨단 복합소재 공급망 자립 시급”

### 국방첨단 복합소재 공급망 내재화 전략 세미나 열려... 민관 협력 필요성 강조

급변하는 세계 안보 환경 속에서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첨단 복합소재 공급망 내재화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현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가 공동 주관한 ‘국방첨단 복합소재 공급망 내재화 전략 세미나’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데크카본, H5효성첨단소재 등 주요 방산 및 소재기업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방산 공급망 취약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무기체계의 첨단화와 경량화에 따라 첨단 복합소재 적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핵심 소재 분야의 해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현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가 공동 주관한 ‘국방첨단 복합소재 공급망 내재화 전략 세미나’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외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방산 완제품 수출 성과 이면에

가려졌던 기초 소재와 부품 단위의 공급망 내재화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장원준 전북대 교수가 글로벌 방산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국가 공급망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장철순 국토연구원 박사는 국가 방산 공급망 강화를 위한 첨단 탄소복합소재 클러스터 구축 전략을 발표했고, 김정철 한국기본 전무는 우수 항공공용 국산 탄소복합재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화시스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과 공급망 이슈를 공유했다.

토론에서는 유도무기와 차세대 전투기, 무인 이동체 등에 적용되는 경량화 소재는 물론 탄소섬유 복합소재와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재 등 극한소재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복합소재 산업 특성상 대규모 초기 투자와 장기적인 기술 검증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방산 체계 기업, 소재·부품 기업, 연구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 미세먼지 특별점검 결과 31개 사업장 적발

### 전북환경청, 주요 산단 대상 실시

전북지방환경청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내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1개 사업장에서 모두 4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약 4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8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점검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춰 진행됐으며, 무허가·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여부와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미이행이 18건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4건(32.5%),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등 기타 위반사항 11건(25.6%)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 기준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설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업장이 적발됐다.

이들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조업정지, 시설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불법 운영하거나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

지 않은 사업장도 다수 적발됐다.

배출·방지시설의 부식과 마모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누출되거나, 측정기기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사례도 12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밖에 신고되지 않은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운영일지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 사례도 적발됐다.

환경청은 이번 위반사항 가운데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상 고발 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과태료와 행정처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인허가 기관에 조치를 요청했다. /오상근 기자

# 바이오진흥원, 전북 전통식품 기업 판로 확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도내 전통식품 기업의 판로 확대와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14일 도내 전통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마케팅 간담회와 온라인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통식품 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실질적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SNS 및 온라인 마케팅 활용,

숯품 콘텐츠 제작, 상세페이지 기획, AI 기반 콘텐츠 제작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특히 참가 기업들은 AI 도구를 활용해 자사 제품 홍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보는 실습에 참여하며 디지털 마케팅의 적용 가능성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이오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전통식품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전북 전통식품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14일 도내 전통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마케팅 간담회와 온라인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품의 판로 확대와 마케팅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 복지사각지대 해소·지역활력 지원

### 국민연금공단, 전북 상생협력 사업 공모

국민연금공단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상생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 사업 공모에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은 15일 전북 지역 상생협력 사업인 ‘N·P·S 전북 프로젝트’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북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기획됐으며, 전국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우수 사업을 공모·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모를 통해 총 3개 우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주요 분야는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문화·복지·체육활동 지원, 안전 인프라 구축과 자원순환 등이다.

국민연금공단은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할 뒤, 선정 기관과 함께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 기관에는 각각 최대 5천만 원씩, 총 1억5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비는 우리카드가 후원한다.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는 “이번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공모 요강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 중기부,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1300억원 지원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와 유가 급등,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총 1,3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최근 급격한 물류비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긴급 조치다.

이번 사업은 일반바우처 800억 원과 물류전용바우처 500억 원으로 나누어 동시에 추진된다.

우선 일반바우처는 약 2,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중동 지역 분쟁으로 현지 수출에 차질을 겪는 기업을 우선 선정해 시장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석유

화학 업종과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K-뷰티·K-패션 전략 품목 기업에는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수출 규모에 따라 최대 1억 원이며, 수출국 다변화 기업과 수출 고성장 기업, 테크서비스 활용기업에는 추가 한도 우대도 적용된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물류전용 바우처는 기존 중동 지역 중심 지원에서 국제운송 이용 실적에 있는 전체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도 물류전용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수출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 전북테크노파크, 글로벌 강소기업 5개사 신규 선정

전북테크노파크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도내 수출 유망 중소기업 5개사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새롭게 선정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2026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도내 글로벌 강소 및 강소+ 기업 5개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출 실적과 기업 성장역량, 글로벌 확장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전년도 수출액 기준으로 5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강소’, 1천만 달러 이상 기업은 ‘강소+’로 구분된다.

올해 신규 지정 기업은 △비나텍(주) △다산기공(주) △에스시디(주) △(주)다시 △(주)지모터스 등 5곳이다.

여기에 기존 지정기업인 △(주)엘에프 △(주)시트르닉스 △대림씨앤씨(주) △케이비넷(주) △익산주열리협동조합을 포함해 모두 10개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오상근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